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류삼준(서울장신대학교/조교수)

samjryu@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는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생명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러한 생명의 위기가 일반 교육은 물론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전제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종교이며 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의 안식이 오늘날 생명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기독교교육이 생명 위기의 시대 가운데 실천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자는 현대사회를 성찰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주요 생명 위기의 현상에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죽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취약계층의 현실과 이에 대한 무관심 및 무감각,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가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이러한 생명 위기의 현상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성과주의,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 후에, 기독교의 안식에 대한 성서적 및 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의 위기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안식이 가진 목적과 의미를 삶과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의 인정,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삶으로서의 안식의 실천, ‘생명 사역’으로서의 안식의 참여라고 해석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독교의 안식이 가지는 목적과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1년 7월 3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 보완하였음.

의미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일깨우는 교육, '생명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생명 위기에 저항하는 교육, 그리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생명 위기, 안식, 기독교교육, 생명문해력, 생명 사역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종교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활력을 공급하셔서 그 생명을 유지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McFague, 1987).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모든 생명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만이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이 그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생명 위기'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명이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를 생명 위기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분명 자살, 각종 살인, 사건 혹은 사고로 인한 사망, 대량 학살, 심지어 생태계의 파괴 등, 생명 위기의 징후는 존재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이 더 다양한 이유와 높은 빈도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더 광범위하게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시간들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어쩌면 온 지구와 인류의 역사상 바로 지금이 생명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일 수도 있다.

생명의 위기는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분명 인간의 그릇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교육은 인간의 마음가짐 및 행동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교육은 과거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기를 묵인하고 정당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의 위기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김홍진, 2002). 이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위기를 대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위기야말로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심각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기독교교육이 생명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방향으로 그 실천을 모색하면 좋은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사실 현대사회의 생명 위기 현상과 관련된 기독교교육학계의 논문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중 본 연구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논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홍진(2002)은 생명 위기의 현상 및 그 원인을 고찰·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인식, 생명의 존엄 및 보존 등을 특성으로 하는 '기독교 생명교육'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웅진(2004; 2013)의 경우,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과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등의 변혁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기독교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은하(2007; 2016)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연대성과 상호성에 기반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과, '생명 존중 사회 형성'을 위한 자살 예방의 기독교교육을 제안하였으며, 이금만(2008)은 생명 경시 사상과 생태계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생명 간의 상호의존성 및 공동체성을 전제로 한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교육'을 주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은주(2020)는 환경파괴 및 생태계의 위기에 대처할,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및 실천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미영(2020)은 지구환경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독교

교육이 창조세계와 인간 사이의 '살림'을 추구하는 '생태리터러시'(ecological literacy)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생명 위기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이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방향 및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면모를 보이며, 이는 또한 본 연구와의 유사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논문들이 (조은하의 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생명 위기의 현상으로 주로 생태계의 위기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생태계의 위기만을 생명 위기의 현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이전 연구들이 주의 깊게 다루지 않은 '기독교의 안식'을 생명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독교의 정신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① 생명 위기 시대의 다양한 현상과 그 원인(혹은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가치관 및 신념 등을 성찰할 것이며, 이어서 ② 이러한 현상 및 원인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기독교적 침인, '안식'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성서적 및 신학적 고찰과 함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③ 생명 위기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기독교의 안식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안할 것이다.

II. 생명 위기 시대에 대한 진단 및 성찰

만일 우리가 현대사회를 생명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생명 위기란 무엇이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대사회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연구자는 잠정적으로 생명 위기를, "생명의 가치 및 생명 지속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부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일반적인 수명을 단축시키는 태도, 행

위, 제도, 환경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태”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위기가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발생 및 조장되고 있다는 점, 인간 개인과 사회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직면한 상황이란 점(김홍진, 2002)을 전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잠정적 정의와 전제를 바탕으로 생명 위기란 단순히 행동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그 현상만이 아닌, 왜 이러한 위기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생명 위기의 현상과 그 원인을 차례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생명 위기의 현상

그렇다면 원인에 대한 서술에 앞서 먼저 한국사회를 비롯한 지구사회 곳곳에 만연한 생명 위기의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또 본 연구의 주제인 기독교의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몇 가지 생명 위기의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의적 자해로 인한 죽음

그 첫 번째는 ‘극단적 선택’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죽음, 곧 자살이다. 매해 9월경에 발표되는 통계청(2020)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의적 자해는 전체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했으며 사망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26.9명, 연간 사망자수는 13,799명이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10-50대의 사망원인 중 1-2위를 차지할 정도로(통계청, 2020) 자살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의 비극만이 아닌 심각한 사회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자살의 경우 우울증이나 우울장애, 삶의 의미 상실 혹은 삶의 만족

도 감소, 각종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상실, 문제 해결 능력의 약화, 가정의 불화와 같은 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력 약화, 모방자살을 유발하는 대중매체의 영향, 경제적 어려움,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등, 상당히 복잡한 요소와 원인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개인적 및 사회적 현상(강영택 외 4인 편저, 2020; 조은하, 2016)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의적 자해와 그로 인한 죽음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생명의 유지를 향한 의지, 생명에 대한 관심 및 돌봄, 생명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약화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심각한 생명 위기의 현상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덧붙여 자살은 스트레스나 피로, 정신 건강, 생명의 존중 등의 측면에서 쉽(안식)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며(강영택 외 4인 편저, 2020),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존엄성 및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조은하, 2016).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현상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이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우연하게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방책이나 후속 조치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분명한 생명 위기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수많은 유형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중 기독교의 안식과 연관되면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예시로 다루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로사’를 논의할 수 있다. 최근 택배근로자들의 사망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택배의 분류, 배송, 집하, 상차 등의 업무에 시달리다가 건강의 이상과 함께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해 사망하는 대표적인 과로사라 할 수 있다

(김태완·김경희·이조은, 2020). 특히 이러한 과로사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소홀한 건강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 관리의 미흡, 정부의 지도·감독·처벌 등의 소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의 미이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오수진·정연, 2019).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는데, 특히 요즘 자주 접할 수 있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같은 경우, 안전사고의 높은 발생빈도와 강도에도 불구하고 조급함, 비용 절감, '적당주의,' 책임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그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를 반복하고 방치하는 안전불감증이 그 핵심적인 원인이 된 사망 사고라 할 수 있다(김세엽 외, 2021).

이처럼 과로사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충분한 휴식 시간의 보장, 안전 점검 시간의 미확보 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쉼(안식)의 문제와도 직결되며, 전반적으로 생명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여기는 한편,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많은 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나타나는 명백한 생명 위기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이러한 사망 사고는 (꼭 산업재해라 이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모든 이의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나 탈진 등과 같이 이미 학계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과 더불어 앞으로 기독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취약계층의 현실과 이에 대한 무관심 및 무감각

본 연구가 주목하는 세 번째 생명 위기의 현상은 취약계층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취약계층의) 무관심 및 무감각이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결식아

동, 생계형 신용불량자, 노숙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쪽방주민,’ 결혼 이민자, 경력단절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신체, 경제,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공공의 개입이나 지원이 없으면 생계의 유지나 사회적 참여가 어려운 집단,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영위하지 못하는 집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대피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사람들 모두를 지칭한다(김성근·류창수, 2015, 14-16; 박일수, 2017; 성기환·최일문, 2011). 따라서 취약계층의 발생과 이들이 처한 현실은 범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환경, 재난, 안전사고 등의 가능성 및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성기환·최일문, 2011) 취약계층은 비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생명 위기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할 경우, 취약계층과 관련된 생명 위기의 문제는 소득이나, 주거 시설, 자연재해 등과만 관련되지 않고 도시화 및 산업화의 폐해, 정부나 정치권의 부정부패, 분쟁이나 전쟁 그리고 종교적 관습 및 갈등 등의 상황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공장 건설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이주된 뒤 빈민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 범죄 집단과 결탁한 독재자로 인해 억압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 종교적 관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처형된 사람들 등은 모두 생명의 위기에 처한 세계 곳곳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존재 및 이들의 현실과 밀접하면서도 이만큼 심각한 또 다른 생명 위기는 바로 비취약계층 중 상당수가 이들의 고통이나 어려움, 그리고 죽음 등을 외면하거나 무관심 혹은 무감각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관련된 대책 마련이나 제도적 개선에 힘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발생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것만은 아니란 점에서 어떠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외면, 무관심, 무감각 등은 결국 생명의 위기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것이자 더 나아가 심화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덧붙

여 취약계층(혹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안전(혹은 안녕)이라는 점에서 평안과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안식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올바른 정신과 실천 방안의 제시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도일, 2020).

4) 자연환경의 파괴

마지막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생명 위기의 현상은, 상당수의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이 자연환경의 파괴는 앞서 서술했던 현상들과는 달리 인간만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겪고 있으며,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 산업화의 지속,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그 규모와 범위, 발생 장소와 빈도가 엄청나게 증가·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토양 및 수질의 오염, 공해, 동식물의 멸종,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그 회복이 어렵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김홍진, 2002),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의 생존만이 아닌 (역설적이게도) 파괴의 주범인 인간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도 매우 치명적이란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위기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쉽 없이 달려온 인류 역사의 부정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안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기에 기독교교육이,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해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연환경의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생명 위기의 현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유일한 현상은 아니란 점과 이 파괴가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생명 위기의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의 파괴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의 미사용 정도가 아닌, 빈부격차의 심화, 부정부패의 만연,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 전력 수급의 불균형,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 자연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

는 신념 등, 개인적, 사회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차원의 다양한 원인 및 영향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문제이며(McFague, 2001, 75-123; Shellenberger, 2021), 또한 앞서 서술했던 생명 위기의 여타 현상들의 원인 및 영향 요소와도 중복되거나 깊이 연관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차원의 생명 위기 현상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힘써 대응해야 할 문제인(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동시에 다른 생명 위기의 현상과 연계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2. 생명 위기의 원인: 비윤리적·비인간적 신념 및 가치관

그렇다면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제도화되고 구조화되어 흐르면서 이러한 생명 위기의 현상을 유발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사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 사상들의 공통점을 미리 지적하자면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생명 경시 풍조’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그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자유주의

가장 먼저 생명 위기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대체로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 시장의 기능에 기반한 각종 경쟁의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개입 축소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중심적 및 시장근본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치적 정책이자 이념 체계를 의미한다(박승인, 2015; 이승원, 2010).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의 핵심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생명보다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이며, 또한 이러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단지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박승인(2015)은 신자유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

회를 “경제적인 가치가 모든 가치 위에 존재하는 맘모니즘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서술한 생명 위기의 현상과 신자유주의를 연결한다면, 먼저 신자유주의는 생산력과 이윤의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무한경쟁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을 조장하고 정당화하고 있는데(박송인, 2015), 이 무한경쟁의 체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패배의식, 열등감, 소외감 등은 때론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은하, 2016). 또한 과로사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비용의 절감을 복지나 안전보다 앞세운 많은 기업들의 신자유주의적 행태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빈부격차의 심화나 부의 편중을 당연시하면서 경쟁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 취약계층이 복지 등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거나 도구화하고 인권의 유린,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등을 묵인하거나 일삼는 경향도 있다(윤응진, 2013; 조미영, 2020).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생명 위기 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과주의

두 번째로 생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성과주의’가 있다. ‘(과잉)생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성과주의란 필요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최소 시간에 최대 생산량(성과)을 일구어내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한병철, 2012, 23-27). 특히 이 성과주의의 생산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성과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한 한병철(2012, 26-29; 101-103)은 성과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

들이 성과와 생산을 극대화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탈진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압박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확대하거나 파괴하는 '자기착취'를 자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성과주의로 야기되는 우울증, 자기착취 등은 극단적 선택(자살)과,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보다 생산량이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성과주의적 태도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매우 깊이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능력으로 유용성을 결정하는 성과주의적 사고방식은 취약계층을 능력도 쓸모도 없는 집단으로 분류해 버릴 위험은 물론, 그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 행위나 그들에 대한 배려 및 돌봄 역시 비생산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결국에는 사회나 공동체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겪는 생명의 위기를 방관하도록 만들 우려도 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키기보다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수탈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김흥진, 2002). 따라서 성과주의 역시 생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셋째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도 생명의 위기를 부추기는 또 다른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소비지상주의란 삶과 존재의 의미 등에 있어서 소비를 통한 재화의 소유를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거나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을 야기하기도 한다(양승준, 2019; 최무진·임은정, 2008).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는, '배금주의'(拜金主義) 혹은 유물론의 다른 이름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물질적 재화, 특히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고 돈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으며 돈은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심리적 및 실존적 안정도 가져다준다고 믿는 태도를 의미한다(최무진·임은정, 2008). 따라서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보다 소비나 재산을 우선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가치(소유나 돈)를 위해 생명을 쉽게 희생시키거나 파괴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나 성과주의와도 그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앞서 서술한 생명 위기의 현상과 관련 짓는다면, 우선 우리는 소위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일순간 그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주변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생의 목표를 오로지 부나 소비, 혹은 소유에 둔 사람들이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다가 건강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적잖이 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저소득 계층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혐오하며 그들의 아픔이나 죽음을 방관하는 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으며, 더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기 위해 자연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목숨마저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세상이 바로 오늘날 현대사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생명 위기 역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상은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다. 여기서 이기주의란 한 개인이 자신의 안녕이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그것은 무시하는 '자기중심주의'를 뜻하며, 인간중심주의란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 둘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자신의 몫이나 안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자 당연한 욕구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점차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해와 동일시하는 착각, 자신의 생존에는 민감하되 다른 사람의 피해에는 둔감한 생활 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는

인식 등, 다양한 유형의 이기주의가 생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다뤘던 과로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감각 등도 일면 사회의 구성원 및 공동체 모두의 이기주의적 태도 및 행동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에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 혹은 권력자들이 지구공동체의 공존보다는 자국의 기업과 정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약소국을 수탈하고 착취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소국의 환경오염의 문제는 외면하는 비인간적인 ‘국가이기주의’적 작태를 보이기도 한다(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Shellenberger, 2021).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인류 문명의 발전 및 이익을 위한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생태계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역사를 써 내려오기도 했다(김홍진, 2002). 따라서 개인, 기업, 국가, 인류 등이 표출한 이기적인 탐욕과 인간중심주의적 행태 역시 생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이와 같은 생명 위기의 현상 및 그 원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결국 생명 위기의 문제는 의식의 변화와 그에 알맞은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 기독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의식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 적절한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로 기독교의 안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기독교의 안식, 그 목적과 의미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은 생명 위기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본 연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을 삶의 영성이자 삶

의 실천으로 전제하면서, 그 방식보다는 그 이유와 목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식에 대한 성서적 및 신학적 고찰

안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기독교의 안식에 대한 고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서를 그 시작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에 대한 고찰은 필연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안식일은 비록 쉬과 관련된 유일한 계명이나 제도는 아니지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으며, 또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시도하는 안식(일)에 대한 고찰은 수많은 성서의 본문 중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만, 또 안식(일)의 율법적 기능(시기 혹은 방법)보다는 복음적 의미와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1) 구약성서

먼저 구약성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하나님의 모범적 실천과 제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이렛날(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심으로써 가장 먼저 안식을 실천하신 분이시란 점(창 2:2-3; 출 20:11, 31:17)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점(창 2:3; 출 20:11)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안식(일)의 기원과 실천의 이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안식일이란 제도 자체와 그것의 준수 여부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범적 실천, 그리고 축복 및 성스러운 제정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체이자 중심이 되신다는 점을 알 수 있다(양용의, 2011, 33-35). 이는 '안식년'의 취지가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레 25:2, 4, 새번역)란 표현을 통해 서술된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두 번째로 우리는 구약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제정하신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일부이자 절정, 그리고 완성임을 알 수 있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앞서 언급했던 본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손을 떼고 쉬시다'(새번역)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원뜻은 '멈추다' 혹은 '한숨을 돌리다'란 뜻이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앞선 옛새 동안의 창조 활동을 끝내신 뒤에 완전히 다른 별도의 행동을 취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창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안식 가운데 창조의 결과를 흠족하게 바라보시며 그 과정을 마무리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약성서를 성찰해 볼 때, 안식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유래)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서술한 신명기 5장 12-15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본문에서 안식(일)은 우선 이스라엘을 노예의 삶과 가혹한 강제노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주거지에서 참된 쉼을 누림으로써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에 참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강영택 외 4인 편저, 2020; 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다른 표현으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위해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활동을 본받는 시간이기도 하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Kent, 2009, 66-69).

마지막으로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 실천하신 안식의 의무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안식일의 경우, 그 준수 의무가 한 개인과 그 가족, 그 소유인 노예와 가축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면(출 20:10; 신 5:14), 안식년과 희년의 경우, 포도밭과 올리브밭 등 내 소유의 땅(출 23:11; 레 25:4)과, 가난한 농업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거

주민(레 25:10), 그리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레 25:5)로 대표되는 자연 까지 그 의무의 대상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Wirzba, 2006, 145). 이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토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인간에 의해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가 녹아있는 것이며 결국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Lowery, 2000, 57-77; Moore, 1998, 148-149).

2) 신약성서

신약성서는 기본적으로 구약성서에서 제시된 안식(일)이란 제도 자체보다는 그 취지와 의미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복음서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안식(일)의 본래적 취지와 궁극적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시자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시다(양용의, 2011, 274-276; Baab, 2005, 45-48; Weiss, 2003, 86-95). 양용의(2011, 274-275)는 이러한 점이 “안식일의 원래 의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12:7),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12:8), 안식일의 일반적인 행동 원리 선언(12:12), 안식일 치유 사역(12:13)”(괄호 안은 마태복음서 본문의 장과 절)을 통해 잘 나타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 즉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셨다(양용의, 2011, 275-276).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현재의 안식은 부활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히 4:1-11)의 상징이자 예표임을 가르치셨다는 것이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양용의, 2011, 229-230; Dawn, 2006, 33). 그리고 ②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식(일)의 근원이자 주관자로 선포하심으로써(마 12:8), 안식의 실천이 단순한 율법의 준수가 아

닌 예수님의 ‘명예’를 매는 것(마 11:29),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선언하셨다(양용의, 2011, 196-201). 또한 ③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의 일반적인 행동의 원리가 좋은 일(선)을 행하는 것(마 12:12), 특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막 2:27)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셨는데, 이 원리는 구약성서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마 12:9-14; 막 1:21-28; 눅 4:31-37; 13:10-17).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병으로부터 혹은 귀신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사역이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날(안식일)에 얽매이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힘쓰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양용의, 2011, 317-320).

따라서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안식(일)을 직접 예비(제정)하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식(일)을 창조와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얽매어 안식일이란 제도 자체를 계승하신 분이시라기보다는 그 취지와 의미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위한’ 구원과 해방으로서의 안식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시며 완성하신 분이라 할 수 있다.

2. 기독교의 안식: 현대사회에서의 목적과 의미

그렇다면 성서를 통해 드러난 안식의 정신은 생명 위기란 주제와 연관하여 현대사회에서 어떤 목적과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1) 삶과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의 인정

첫째, 안식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삶과 생명의 주도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실천과 제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모든 삶과 생명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고백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이미 기독교의 신념으로 자리 잡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외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생명(혹은 생사) 결정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한다(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동시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수용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은 성과주의나 소비지상주의 등을 바탕으로 일이나 노력, 재화나 소유 등을 의지하면서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며 감사함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한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Wirzba, 2006, 37-38). 같은 맥락에서 또 안식은 삶이나 생명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Lowery, 2000, 147-148).

2)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 우리는 안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불러넣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일부이자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한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의미를 담아 모든 존재에게 쉼(안식)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며, 그렇

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과 자연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도 쉽이 꼭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안식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 (Lowery, 2000, 121).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성품은 또한 우리의 쓸 것을 부족함이나 지나침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출 16:13-30) 하나님의 돌봄으로도 나타난다(Dawn, 2006, 40; Lowery, 2000, 93-103).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안식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성품을 느끼며 생명을 향한 그분의 창조와 구원, 해방의 사역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Heschel, 2005, 75).

3) 거룩한 삶으로서의 안식의 실천

셋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안식을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안식은 종말에 누릴 영원한 안식의 미리 맛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실천은 단순히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안식일이란 제도 자체를 지키는 수동적인 행위(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능동적 행위(수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양용의, 2011, 39).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자유주의나 성과주의 등이 요구하는 쉽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요로움,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안식이 함께 하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Lowery, 2000, 88-89).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멈추고 쉬는 행동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뭔가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쉬는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쉽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고귀한 성

품과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4) '생명 사역'으로서의 안식의 참여

마지막으로 안식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쉽지만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모든 피조물의 안녕과 평화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해방이라는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Heschel, 2005, 31-32).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또 다른 목적이자 의미라는 말이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도 그 제도나 율법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안식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하시고 그 안녕과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 풍조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환대, 나눔 등을 실천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다(Lowery, 2000, 143-146).

그뿐만 아니라 안식의 정신에 담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폭력과 억압, 파괴에 맞서 인권을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쓸 책임이 있다(김근주 외 4인 편저, 2015; Kent, 2009, 68).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이 지향하는 범지구적 구원과 해방의 정신에 맞게 인간만이 아닌 자연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한편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 힘쓸 의무도 있다(Moore, 1998, 149; Wirzba, 2006, 146). 이처럼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안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사려

와 끊임없는 돌봄을 본받아 모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Dawn, 2006, 61-62; Lowery, 2000, 90-92).

IV. 안식과 함께하는 생명 위기 시대의 기독교교육

그렇다면 기독교교육은 생명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안식의 목적과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이 적절할까?

1.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일깨우는 교육

생명 위기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안식을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기독교교육은 생명 경시의 풍조에 맞서 삶과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안식의 의미를 바탕으로 교육참여자도 하여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의 생명은 물론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생명의 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또한 우리의 생존과 생계가 신자유주의나 성과주의에 기반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하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재력에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소비시장주의적 태도로부터 '손을 떼고 쉬도록,' 또 성과주의에 기반한 성취와 성공을 향한 탐욕이나 부와 명예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물질만능주의적 고집을 '멈추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Dawn, 2006, 48-49).

이를 위해, 예를 들면, 교회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 학교에서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에 기대어 현금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필요성과 그 기쁨을 증거하는 설교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예수님의 생활방식을 본받아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실천해보는 영성훈련으로서의 '자발적 가난' 역시 적절한 실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독교교육은 안식의 정신과 실천을 바탕으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의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등을 생명 위기의 문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기독교교육의 주요 주제로 삼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계획 및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생명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두 번째, 기독교교육은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 위기의 현상 및 원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그 실체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생명 위기의 해소를 위해 그 적절한 실천을 결단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민감성, 인식 능력, 그리고 결단력을 종합하여 '생명문해력'(life literacy)이라 이름하고자 한다. 이 생명문해력이란 개념은 오어(Orr, 1992)가 주장하고 골드먼, 베네트, 발로우(Goldman, Bennett & Barlow, 2012) 등 많은 학자들이 계승·발전시킨, 또 한국의 기독교교육학계에서는 조미영(2020)이 활용한 '생태리터러시'(ecological literacy) 혹은 '생태문해력'(ecoliteracy)이란 개념으로부터 연구자가 영감을 얻고 이를 차용 및 변형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 개념은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면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오어 등이 제안한 생태문해력의 경우,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향한 인식 및 삶의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능력(Orr, 1992, 85-95),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와 공감(empathy), 돌봄 등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Goldman, Bennett & Barlow, 2012, 6-7) 주로 생태계의 파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 총체로 간주하는 범지구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자가 제안하는 생명문해력은 생태문해력의 이러한 특징이 역으로 인간의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생명 위기의 현상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이 겪는 생명의 위기와 자연의 그것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볼 것과, 또 (본 연구가 시도한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지구공동체적 생명 위기의 현상을 서로 연결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파괴가 개인이나 집단이 겪고 있는 굶주림, 가난, 비위생적 환경, 억압, 착취, 인습, 범죄 등, 인간의 생계, 생존, 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 구조 전반의 비윤리적·비인간적 행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안식이 단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가족, 집단과 민족, 더 나아가 자연과 지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명문해력을 함양하는 기독교교육은 다양한 안식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주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즉 훼손되고 파괴되는 모든 생명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애뜻한 마음과 성품을 닮도록 힘쓰는 교육 (Moore, 1998, 146)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식을 실천함으로써 자연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이든 이를 짓밟고 위협하는 다양한 생명 위기의 현상들과 그 원인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총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즘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의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 교인의 감소 등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감염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생계

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하고 바라보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편 도움의 방안을 찾도록 이끄는 교육이 바로 생명문해력의 교육 중 한 모습이 될 것이다.

3. 생명 위기에 저항하는 교육

안식의 구원과 해방이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세 번째로, 기독교교육은 생명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현상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생명의 위기 전체에 저항하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제안이 인식 및 신념의 변화, 두 번째가 민감성 및 성찰력의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세 번째와(이어지는) 네 번째는 행동과 실천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세 번째 제안은 연구자가 브루그만(Brueggemann, 2014)의 책, *Sabbath as resistance*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인데, 브루그만은 이 책에서 안식(일)을 불안감, 압제, 배타주의, 물욕 등에 대한 '저항'이라고 명명하면서, 안식(일)을 단지 생업이나 오락만을 멈추는 행위가 아닌 다양한 비윤리적인 혹은 비인간적 신념과 행동을 멈추는 저항의 행위로 해석하는 깊은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그의 주장과 통찰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생명의 위기에 저항하는 기독교교육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생명 위기에 저항하는 기독교교육은 교육참여자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비판적 성찰(생명문해력)을 통해 파악한(생명 위기의 원인이 된) 그릇된 신념들이나 가치관들을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한편, 더 나아가 자신의 주변과 사회도 그렇게 변화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인간적 사상들을 사회적으로 공회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실천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나 소비지상주의 등에 바탕을 둔, 생계에 대한 걱정, 소비와 소유의 감소에 대한 집착, 다른 이를

경쟁의 상대나 위협의 요소로 여기는 착각, 빼앗지 않으면 빼앗길 것이란 염려와 불안감 등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생명의 위기를 야기하는지를 지인이나 이웃과 함께 (종교를 떠나) 진솔하게 논의하도록 돕는 교육, 그래서 그들과의 사이에 생명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Brueggemann, 2014, 27-31) 교육이 바로 그러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의 위기에 저항하는 기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안에 내재된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인습화된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이나 행동, 제도 등을 의식적으로 '멈추도록' 이끄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살을 미화하거나 부추기며 충동적인 보도를 일삼는 미디어의 작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중한 업무와 착취를 일삼는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그런 교육일 것이며, 또 유해한 성분의 식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주거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도록 격려하는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옹호하거나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나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 불합리한 제도나 불평등한 법 등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한 시위나 투표권의 행사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적 신앙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김도일, 2020)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번영만을 꿈꾸면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정당화하는 특정한 신학이나 세계관 등에 대해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인간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담은 안식의 정신으로 맞서도록 격려하는 것도 저항의 기독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이익, 성과, 소유 등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결정 짓는다고 믿게 만드는 다양한 가치관 및 사회 제도, 정치·경제 체제 등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돕는 교육이 바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교교육인 것이다.

4.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안식은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이 모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될 것을 요구한다. 앞서 밝혔듯이, 안식은 단순한 생업의 중단이나 무위도식을 일삼는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의미에서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특별히 모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생명의 안녕과 평화에 힘쓰는 교육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본받아 모든 사람이 적절한 쉼의 기회, 안식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애쓰는 교육(강영택 외 4인 편저, 2020)이 바로 그러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터나 학업, 사역 등의 현장에서 경쟁, 생산, 소유 등을 위해 쉼을 반납하거나 잃어버린, 그래서 스트레스, 과로, 탈진,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적인 활동이나 안식과 관련된 영성훈련 등을 통해 적절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식(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인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바로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안식의 의미를 살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능력이나 소유, 성과나 유용성 등에 근거하여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평등사상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상호존중의 필요성 등을 실천하도록 돕는(Brueggemann, 2014, 40-41, 55)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평

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도록(Brueggemann, 2014, xiv-xv) 격려하는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 및 평화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의 안식,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로운 공생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Lowery, 2000, 102-103) 역시 그러한 기독교교육인 것이다.

일례로, 전문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자살예방교육의 실시 및 유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제공(조은하, 2016),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의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된 법과 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사회 운동에의 참여, 불필요한 소비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아나바다’ 운동의 생활화, 사회적 약자의 생계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 다양한 취약계층을 향한 나눔과 구제의 실천, 그리고 유용한 사회복지 정책의 제안 및 지지(김도일, 2020), 재활용의 생활화 및 친환경 제품의 사용,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의 참여(김은주, 2020; 이금만, 2008) 등을 일상과 종교생활 가운데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구원과 해방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V. 나가는 말

이상으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의적 자해에 의한 죽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취약계층의 현실과 이에 대한 무관심 및 무감각,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생명 위기의 현상을 진단하고, 또 그 기저에서 원인으로 작용하는 신자유주의, 성과주의,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라는 인간의 그릇된 사상을 비판적으로 성

찰하였다. 그런 후에 이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기독교의 안식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목적과 의미를, 성서적 및 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삶과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며, 거룩한 삶으로서의 안식을 실천하고 생명 사역으로서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안식이 가지는 목적과 의미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독교교육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힘써서 실천해야 할 과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일깨우는 교육, 생명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생명 위기에 저항하는 교육, 그리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제안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건설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면상의 제약과 연구의 특성상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 연구를 보완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먼저 본 연구는 다양한 생명 위기의 현상 및 원인을 총체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반면, 각각의 현상 및 원인이 가지는 개별적인 중요성은 다소 간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로사나 안전불감증, 취약계층, 소비지상주의 등과 같이 기독교교육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주제들의 경우, 개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룬다면 이는 분명 본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또 다른 시급한 생명 위기의 현상 및 원인을 발견하고 논의하는 연구 역시 본 연구의 취지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연구자에게는 앞서 제안한 생명문해력이란 개념이 분명 생명 위기 시대의 기독교교육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미 언급했듯이, 이를 수정·보완하는 후속 연구 역시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살리는 종교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기독교는 어쩌면 끊임없는 생명 위기의 시류 속에서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한 채 그대로 휩쓸려가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물론 이 생명의 위기란 물결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조차 거스르거나 맞서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범세계적인 현상이자 사상이어서, 자칫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그대로 휩쓸려가기가 십상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신자유주의에 편승해 수십억 원이 넘는 무리한 대출을 받으며 건축헌금을 독려하거나, 성과주의를 지향하며 수만 명이 넘는 교인을 꿈꾸며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한편,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며 교회의 재정권을 둘러싸고 폭력과 소송에 휘말리는 추태를 벌이며, 위태로운 부목사의 생계를 알면서도 열악한 사역 환경을 고집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부정부패에는 눈감고 취약계층은 외면하는 모순적이고도 이기적인 대사회적 태도를 일삼고, 생태계의 파괴 앞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변호하는 신학을 주장하는 등(강성열 외 13인 편저, 2015), 저항이 아닌 동조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돌이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위한 안식일’(막 2:27), 즉 생명을 위한 안식을 꿈꾸면서, 율법주의적 관점에 얽매어 주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따지기보다는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며 진정한 안식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애썼나 그렇지 못했나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은 교육참여자로 하여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보여주신 생명 존중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안식을 자신의 안식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의 위기에 저항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돕고 격려하는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더 바라는 이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떠나 기독교 전체가 연대하는 한편, 비기독교인들도 납득할 만한 생명 존중의 필요성과 현실적 이유를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교를 막론하고 이 생명 위기의 시대에 생명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열 외 13인(편) (2015). **목회매뉴얼: 생명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Kang, S. Y. et al. 13 (eds.) (2015). *Manual on ministry: Life ministry*. Seoul: Korean Presbyterian Press.]
- 강영택 외 4인(편) (2020). **쉽이 있는 교육**. 서울: 쉽이있는교육.
- [Kang, Y. T. et al. 4 (eds.) (2020). *Education for rest*. Seoul: EducationforRest.]
-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 [Kim, D.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김근주 외 4인(편) (2015).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 [Kim, G. J. et al. 4 (eds.) (2015). *The Sabbath? Or the Lord's day?* Daejeon: Daejangan.]
- 김세엽 외 3인 (2021). 건설근로자가 갖는 안전불감증의 특성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2, 88-96.
- [Kim, S. Y. et al. 3 (202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insensitivity in construction worker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2, 88-96.]
- 김은주 (2020).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63, 347-376.
- [Kim, E. J. (2020). Direction and practical proposal for Christian education through ecological Christia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47-376.]
- 김태완·김경희·이조은 (2020.10). 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월간 복지동향, 264, 53-60.
- [Kim, T. W., Kim, G. H., & Lee, J. E. (2020.10). Shipping labor workers' death by overwork, how can we stop it? *Monthly Bogjidonghyang*, 264, 53-60.]

- 김흥진 (2002). 기독교교육에서의 생명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 125-151.
[Kim, H. J. (2002). A study on the life education in Christian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5, 125-151.]
- 김성근·류창수 (2015).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Kim, S. G., & Ryu, C. S. (2015). *A study on the safety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 socially vulnerable group*. Seoul: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박승인 (2015). 신자유주의 시대와 기독교 신학의 과제. **신학논단**, 80, 141-169.
[Park, S. I. (2015). The task of the Christian theolog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ological Forum*, 80, 141-169.]
- 박일수 (2017).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향 탐색. **교육논총**, 54, 1-18.
[Park, I. S.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material to support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4, 1-18.]
- 성기환·최일문 (2011).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 1-22.
[Sung, K. W., & Choi, I. M. (2011). A research on building protecting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in large scale disaster area. *Crisisonomy*, 7, 1-22.]
- 양승준 (2019). 신자유주의 시대 회중의 '경제적 성화 교육'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73-98.
[Yang, S. J. (2019). A study on the economical sanctification education of the congregation in neoliberal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73-98.]
- 양용의 (2011).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개정판)**. 서울: 이레서원.
[Yang, Y. E. (2011). *Jesus, Sabbath and the Lord's day (Rev. ed.)*. Seoul: Jireh Publishing House.]

- 오수진·정연 (2019). 과로사 예방 및 보상 정책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0, 83-94.
- [Oh, S. J., & Jeong, Y. (2019). Policy challenges for preventing and compensating overwork-related death.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70, 83-94.]
- 윤응진 (2004). 생태학적 기독교교육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477-501.
- [Yun, E. J. (2004). A reflection on Christian education as ecological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31, 477-501.]
- 윤응진 (2013). 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36, 1-33.
- [Yun, E. J. (2013). The task of Christian educational work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1-33.]
- 이금만 (2008).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교육의 성격. **기독교교육논총**, 18, 179-202.
- [Lee, G. M. (2008).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education for life. *Journal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18, 179-202.]
- 이승원 (2010). 신자유주의 소비문화적 쉼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소비무능력자'의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전략을 위한 시론. **생명연구**, 15, 83-123.
- [Lee, S. W. (2010). Reflection on the rest under the neoliberal consumer culture: On the radical democratic strategy for the emancipation of 'incapable consumer.' *Studies on Life and Culture*, 15, 83-123.]
- 조미영 (2020). 세계화 시대의 생태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교육. **신학논단**, 101, 309-339.
- [Cho, M. Y. (2020). Christian education to cultivate ecological litera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ological Forum*, 101, 309-339.]
- 조은하 (2007). 생태적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매튜 파크(M. Fox)의 창조영성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5, 171-205.
- [Cho, E. H. (2007). Christian education for ecological life: Focused on Matthew Fox's creation spiritual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5, 171-205.]

조은하 (2016). 생명존중 사회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자살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5, 127-159.

[Cho, E. H. (2016).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forming the life respecting society: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5, 127-159.]

통계청 (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Statistics Korea (2020.9.22.). Press releases: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9.]

최무진·임은정 (2008). 배금주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의 모색. *로고스경영연구*, 6, 13-30.

[Choi, M. J., & Lim, E. J. (2008). Christian pedagogical approach to overcome Mammon worship. *Logos Management Review*, 6, 13-30.]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저 2010 출판)

[Han, B. C. (2012). *Müdigkeitsgesellschaft* [The burnout society]. Translator: Kim, T. H. Seoul: Moonji Publication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Baab, L. M. (2005). *Sabbath keeping: Finding freedom in the rhythms of res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Brueggemann, W. (2014).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Dawn, M. J. (2006). *The sense of the call: A Sabbath way of life for those who serve God, the church, and the worl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oleman, D., Bennett, L., & Barlow, Z. (2012). *Ecoliterate: How educators are cultivating emotional, social, and ecologic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Heschel, A. J. (2005).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Kent, K. W. (2009). *Rest: Living in Sabbath simplicity*. Grand Rapids: Zondervan.

Lowery, R. H. (2000). *Sabbath and Jubilee*. St. Louis: Chalice Press.

- McFague, S. (1987).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McFague, S. (2001). *Life abundant: Rethinking theology and economy for a planet in peri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Moore, M. E. (1998). *Ministering with the earth*. St. Louis: Chalice Press.
- Orr, D. W. (1992). *Ecological literacy: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postmodern worl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hellenberger, M. (2021).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노정태 역. 서울: 부키(주). (원저 2020 출판)
- [Shellenberger, M. (2021). *Apocalypse never*. Translator: Noh, J. T. Seoul: Bookie Publishing House, Inc.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0)]
- Weiss, H. (2003). *A day of gladness: The Sabbath among Jews and Christians in antiquity*.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Wirzba, N. (2006). *Living the Sabbath: Discovering the rhythms of rest and delight*. Grand Rapids: Brazos Press.

Abstract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Sam Jun Ryu

Assistant Professor,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author considers that contemporary society has entered the era of ‘life on earth in peril’ as a very serious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past, and assumes that this life-in-peril situation, known as ‘life crisis,’ is one of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as well as in public education. This urgency and importance is mainly based on the belief that Christianity is the religion of life that values all living beings’ life and all Christians have the sacred vocation to cope with this crisis of life on earth, given by the life-giving God.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some tasks that Christian education should perform in the era of imperiled life, premising that diverse life-threatening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in today’s world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ristian Sabbath. More specifically, first of all, this article analyzes some notable phenomena of the life crisis in the contemporary world, such as deaths from intentional self-harm (suicides),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the real-life situation of vulnerable populations, people’s indifference and insensitivity to the situation, and natural environmental degradation, by reflecting on current global issues as well as issues in Korea. This paper also criticizes neoliberalism, productivism, consumerism, economic materialism, egotism, and anthropocentrism as ideologies for causing these phenomena. After the criticism, the author interprets, from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the Christian Sabbath, main purposes and meanings of the Sabbath for contemporary society that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crisis of life on earth: confessing that God takes the initiative to govern every creature's living and being; buil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God who has given the power of life to all living beings; practicing the Sabbath rest by living a holy life; and participating in the Sabbath rest as 'life-giving ministr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Christian educational practices that confront the life crisis, rooted in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the Christian Sabbath: reminding participants of the belief that God is the source of life on earth; cultivating 'life literacy'; helping people to resist the crisis of life; and encouraging humans to pursue the well-being and peace of both humanity and the earth.

《 **Keywords** 》

Life crisis, Sabbath, Christian education, Life literacy, Life-giving ministry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